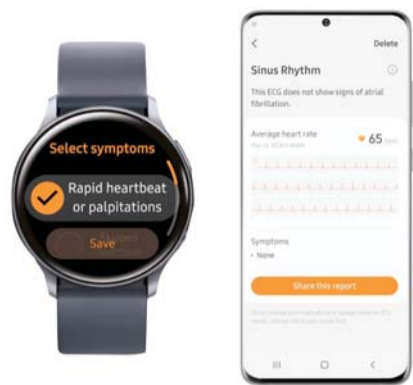


착용하면 심전도·혈압·혈당 측정 스마트 워치, 손목 위 주치의 진화

코로나19로 원격의료 필요성 ↑
규제로 막혀있는 헬스케어 발달
삼성전자·애플, 건강관리 기능 강화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심전도 측정 화면. /삼성전자

스마트워치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기기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에 걸음수와 소모칼로리 알림, 수면 상태 파악 등을 넘어서 손목에 차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전도, 혈압, 혈당 측정 등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워치의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그간 규제에 막혀있던 스마트워치의 헬스케어 기술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오는 8월 공개하는 '갤럭시 시워치3'에 혈압 및 심전도(ECG) 측정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압 측정 앱을 허가받았는데 이어, 지난달 심전도 측정 앱을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 혈압뿐 아니라 심전도도 간편하게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심전도 측정 앱은 스마트워치의 센서 기술을 활용해 심장의 전기 활동을 분석

해 동리듬과 심방 세동을 측정하고 분석해 표시해 준다.

심전도 측정 방식도 간단하다. 사용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앱을 열고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팔과 손을 평평한 표면에 올려놓은 후 반대쪽 손의 손가락 끝을 30초가량 스마트워치의 상단 버튼에 가볍게 올려놓으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간편한 심전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조기 진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뇌졸중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전도 측정은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 올해 3분기 내 출시할 계획이며, 관련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워치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미 지난해 9월 출시된 갤럭시 워치 액티브2에서는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다.

애플은 하반기 중 심전도 기능 등을 탑재한 '애플워치6'를 출시할 예정이다. 애플은 지난 2018년 출시한 애플워치4에서 이미 심전도 측정 기능을 선보였지만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기능을 막아둔 상태다. 이때문에 일부 이용자는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개조해 심전도 기능을 이용하기도 했다.

애플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정 받았는데, 업계는 이를 애플워치의 심전도 기능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워치6에는 심전도 측정 기능뿐만 아니라 혈당 측정 기능까지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마트워치를 통한 심전도, 혈압 측정 등이 가능했지만 의료에 활용할 수 없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워치로 심전도와 혈압을 측정해도 규제 때문에 의료에는 활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육성한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규제도 느슨해지길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G상사 민병일 CFO(왼쪽 세번째)와 IBK기업은행 서정학 CIB그룹 부행장(오른쪽 세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상사

LG상사-IBK기업은행, 中 海외진출 지원

'글로벌-K 동반성장 프로그램' 협약

LG상사가 국내 유망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LG상사는 10일 IBK기업은행과 '글로벌-K 동반성장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우대금리 대출 지원과 실질 성장을 위한 특화프

로그램을 제공하며 해외 수출 시장 활로 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다.

LG상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IBK기업은행에 200억원을 무이자 예치했으며, IBK기업은행은 600억원 한도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줄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iuk@

KT, 영업비밀 보호 협약 1호 기업 참여

(대기업-협력사)

KT가 특허청에서 추진중인 대기업-협력사 간 영업비밀 보호 협약에 1호 기업으로 참여했다.

KT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특허청 및 KT 대표 협력사와 '국내 기업의 상생 노력과 영업비밀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KT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사 핵심 기술 탈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영업비밀 보호 문화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협약 대상으로 대기업 중 첨단 기술을 다뤄 협력사와 함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보호 의지가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기준으로 업체를 선별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주행에 맞게 모드변경... 운전하는 재미 '쏙쏙'



BMW '530e'

5시리즈 첫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산출력 252마력, 제로백 6.1초



BMW 530e 주행모습.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친환경차 개발에 속도를 높이면서 대부분 차량들이 상향 평준화되었다. 그런데 최근 욕심나는 차량을 만났다.

뛰어난 정숙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BMW 5시리즈 첫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530e이다. BMW가 자랑하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기존 모델들이 갖지 못했던 기술을 대거 적용해 운전자의 부담감을 최소화했다.

BMW의 주력차종인 5시리즈 최초로 출시된 PHEV의 장단점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경기도 포천 일대를 경유해 돌아오는 약 200km 구간에서 시승을 진행했다.

첫 인상은 기존 5시리즈와 큰 차이점이 없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특유의 강

렬한 존재감과 스포티한 스타일을 갖추고 있다.

530e는 세가지의 주행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엔진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기동력으로만 주행하는 '맥스 e드라이브', 전기모터와 가솔린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오토 e드라이브', 배터리 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배터리 컨트롤 모드' 등이다.

530e는 전기 모드만으로 최대 39km를 주행할 수 있어 서울 도심에서는 오히려 전기모터로만 주행했다. 특히 고속주행이 힘든 복잡한 도심에서 전기

모터는 매력적이다.

주행 성능도 매력적이다. 총 시스템 합산 출력은 252마력(전기모터: 113마력, 가솔린 엔진: 184마력)에 달하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1초만에 가속한다. 고속구간에서의 가속력은 뛰어났다.

530e의 주행에는 즐거움도 있다. 운전자가 주행상황에 따라 모드를 변경하면 배터리 부담도 최소화된다. 고속주행시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한 뒤 도심주행에서는 충전된 배터리로 주행을 이어갈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엔카닷컴, 온라인 외투기업 채용 설명회 참가

IT·개발 분야 채용 예정

엔카닷컴이 우수 인재들에 손을 내밀었다. 엔카닷컴은 9일 '제2차 온라인

외투기업 채용설명회'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온라인 외투기업 채용설명회는 우수한 외국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자를 위해 코트라(KOTRA)가 주최하는 채용설명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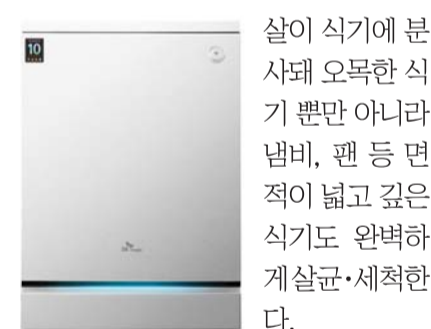
엔카닷컴은 9일 코트라 본사 2층 화상상담실에서 오후 4시까지 기업 채용 정책을 발표했다. IT·개발 분야에서 채용할 예정으로, 1000여명 구직자가 참가했다. /김재용 기자

SK매직, '터치온 플러스' 예약 판매

스태디셀러 '터치온' 기능 강화

SK매직은 스태디셀러 '터치온'의 기능을 강화한 식기세척기 '터치온 플러스(사진)'를 선보이고 이달 30일까지 SK매직몰을 통해 예약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일 출시하는 '터치온 플러스' 식기세척기는 SK매직만의 특화된 세척 기술인 '파워워시'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유일의 상, 중, 하단에 위치한 3개의 세척 날개가 동시 회전하며 만들어 낸 강력한 물



살이 식기에 분사돼 모퉁이 식기 뿐만 아니라 냄비, 팬 등 면적이 넓고 깊은 식기도 완벽하게 살균·세척한다. 건조 기능도 한층 향상됐다. 자동 문열림 기능과 함께 국내 유일 초강력 열풍건조가 더해진 '파워드라이' 시스템이 건조시간을 더욱 단축시켰다. /김승호 기자 bada@

미니코리아, 국내서 '뉴 미니 컨트리맨' 공개

한국,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잘 부합

프리미엄 소형차 미니도 국내에서 '월드 프리미어'를 진행한다.

미니코리아는 24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포레스트캠프에서 뉴 미니 컨트리맨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미니의 새로운 모델이 한국에서 처음 공개되는 것은 미니 브랜드 역사 60년에서 처음이다

BMW그룹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지역적 특성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잘 부합한다는 점에서 뉴 미니 컨트리맨



미니 컨트리맨. /미니코리아

의 월드프리미어 개최를 결정했다.

아울러 'K-방역'이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함께, 미니를 향한 한국 고객들의 뜨거운 애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재용 기자